

역사에 있어서 자유, 법칙 그리고 섭리

Freedom, Laws and Providence in History

김 중 락

I. 서론

인간사(人間事)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것을 계획하고 그 결과를 예상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는 분명 우리가 계획하고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반면 우리의 계획과 예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미한 행위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사건을 유발하기도 하며, 또한 어느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으며 염두에 둔 일이 없었지만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을 때 루터 자신뿐 아니라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이나 유럽의 지식인 중 어느 누구도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으며, 산업혁명의 경우도 누군가가 “자, 이제 산업혁명을 일으켜 보자”고 계획하여 일어난 것은 아니다. 기술 문명의 발달이 인간의 행복만을 증진시키리라고 생각

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그들이 질식할 만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역사가들이 인간의 의지 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데 강조점을 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하는 행동의 제한조건을 무시하는 태도이며, 인간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의 선택적인 행동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위의 두 태도 중 유력한 것은 두번째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결정론의 태도를 취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는 어떤 결정된 형태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인간의 행위가 자연의 법칙이나 인간 역사의 특수한 법칙 속에서 하나의 변수가 되어 나타나므로, 인간의 의도나 계획 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주도권 역시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¹⁾

그러나 위의 두 가지 태도는 역사에서 신의 역할, 즉 신의 섭리를 인정하려는 유신론적인 태도를 부인하는 것이며, 역사에서 인간의 역할에 강조점을 두고자 한 르네상스적 태도와 자연 법칙의 일부로서 역사를 인식한 그리이스적 전통의 반영이라 하겠다. 유대-기독교적 견해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 - 이 섭리는 위의 두 가지 태도를 포함하는 것이다 - 의 장으로서 역사를 보는 것이다.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은 지나온 과거밖에 볼 수 없는, 그것도 피상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인간에게는 신앙의 문제요, 세계관의 문제이다. 또한 어느 견해가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역사가가 대답하기 전에 철학자에게 그 대답이 요구되어지는 문제이다. 그러나 사건의 원인과 의미, 그리고 수행자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 역사가에게 있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숙고가 없다면 사상누각을 짓는 일과 다름없다.

본고는 어느 견해가 타당한가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유대-기독교적 입장에서 역사의 주체가 무엇인가를 논하며, 그 속에서 인간의 행동과 책임, 여러가지 법칙이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가를 나름대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歷史의 主體에 대한 견해들

1. 구약성서의 견해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이해하고 그들의 삶 속에 적용시킨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며, 구약성서는 그들의 이러한 인식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식한 야훼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다른 신과는 달리 인격적인 신이며, 늘 인간과 대화하고 계약을 나누며, 인간의 삶에 간섭하는 신이었다. 야훼는 역사의 아웃 사이더(outsider)가 아니라 인 사이더(insider)이며 역사의 주체자인 것이다.²⁾ 그렇다고 해서 그리이스의 신들처럼 인간과 동일한 심장을 가지고 결혼하며 먹고 마시는 탐욕적이고 경박한 신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야훼는 그의 뜻을 인간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며 그 방법은 계약을 통한 것이다. 야훼는 아담(Adam), 노아(Noah), 아브라함(Abraham), 이삭(Issac), 야곱(Jacob)과 계약을 맺었으며 그 이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는다.

이 계약은 신에 의해 주어진 일방적 명령이지만, 계약의 이행과 불이행에 따른 분명한 보답이 있다. 이스라엘이 계약을 지키

필/자/소/개



필자는 경북대 서양사를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 이수중이다. 현재 경북대와 경북신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연구회담당 실행위원으로 대구 세계관 연구회를 인도하고 있다.

대구 서교회 집사이며 대학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면 이스라엘은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계약은 그들이 야훼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며,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계약을 파괴했을 때 하나님은 주변국가로 하여금 징계를 대신하게 하였다. 이 징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야훼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다시 범되지 않는 한 축복을 내리신다.³⁾

구약성서 <사사기>의 저자는 위의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삿 2:11-12)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삿 6:6)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삿 6:7)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삿 8:28)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역사의 주로 인식하였으며,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라 하여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철저히 그들의 삶 속에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는 그들의 행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 그 자체인 것이다.

2. 고대 그리이스인의 견해

자연주의를 신봉하는 근대 사학자들의 토대가 되는 그리이스인들의 역사 감각은 유대인들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 흔히 고대 그리이스인들은 역사의식이 없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것은 역사를 자연의 순환의 일부로 인식하고 그 내포된 의미에 대한 무의식에 대한 지적일 것이다. 순환론적인 역사관이라 묘사되는 그리이스 사관에서, 역사란 끝없이 되풀이 되는 수레바퀴와 같은 것으로서, 자연의 생성과 소멸과 다를 바 없다. 그들은 계절에 따른 자연의 규칙적인 변화, 생물의 생성과 소멸, 식물계의 재생과 멸절에 관심을 가졌으며 천체의 주기적인 운동에 대한 흥미로부터 지상에서 일어나는 인간 삶의 변화를 규칙적인 자연적 순환의 일부로서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순환론 속에서 인간의 행동은 아무런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다. 그들의 여하한 행동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역사의 흐름으로부터 초월하거나 벗어나는 것 뿐이다.⁴⁾

라인홀드 니이버는 그의 명저 「신앙과 역사(Faith and History)」에서 이러한 그리이스적 견해를 “비역사적인 정신성에 대한 서양의 지적 해석”이며, 역사적인 존재의 혼란과 특수성으로부터 벗어나 역사를 초월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의도를 상실케 하며, 역사 자체가 파생적 의미밖에 없도록 하는 견해라고 지적하고 있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트만의 지적처럼, 그리이스인들에게도 사람에 대한 본질 규명의 욕구 즉 ‘참 실존’에 관한 질문이 있었으며, 그들이 발견한 역사의 순환이란 것도 우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법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

다. 이 법칙은 인간의 행위로 변경되지 않는 것이며, 이스라엘이 믿는 섭리는 그들에게 특별한 요청이 있음에 반해 이들의 법칙은 다만 그들에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뿐이다.⁶⁾

그러나 투키디데스 이후에 그리이스 역사가들의 작품 속에서는 헤로도투스(Herodotus)의 「페르시아 전쟁사」에서 보여지는 신화적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이스 역사가들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역사를 주장한 것이다.⁷⁾ 이 점에서 히브리인들의 사관과 그리이스인들의 사관은 역사의 의미성에 대한 시각 외에 또다른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이스인들의 역사 이해는 법칙 내에서 인간의 행동이며 법칙을 초월하는 인간의 행동은 아니다. 그리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가였던 투키디데스도 그의 「필레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역사의 주체로서의 인간 인식에 도달하였지만, 불변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다시 일어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III. 역사에 있어서 법칙의 문제

오늘날 인간의 의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며,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의지 뿐이라고 강변하는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자연법칙처럼 역사과정도 인간의 여하한 노력에도 관계 없이 조금도 불변하는 하나의 철칙이라고 믿는 고대 그리이스적 견해를 견지한 자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르네상스 이후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주류는 인간 행위와 결정론적인 법칙 사이의 타협의 산물인 것처럼 보인다. 역사가 인간의 행위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이 인간의 역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법칙을 지각함으로써 미래를 지배할 수 있으며, '인간 역사의 상당한 분야가 원래의 법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고 평가하고 행동하는 것의 결과로서 개입해 들어오는 다른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법칙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미래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면 미래를 결정론적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⁸⁾

시드니 후크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예로 하여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헌법에는 카톨릭이나 유대교 신자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선출되는 데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그가 선거에서 이길 승산은 없다. 이것은 경험에 입각한 귀납으로서 미국의 정치적 행위의 한 법칙이다. 이것은 미국의 현실 정치가들이 고려해야 할 법칙이지만 전혀 변경 불가능한 법칙은 아니다. 만일 입후보자가 국민적인 영웅일 때 그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우리는 또다른 법칙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는 것이다. 법칙에 실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다.⁹⁾

이러한 견해는 확실히 역사에 무의미한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었던 그리이스적 한계의 극복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이 견해는 르네상스 이후 발전되어 온 과학기술과 함께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하여 현대인의 새로운 신앙인 '진보'를 출산하였다. 법칙마저 조절할 수 있는 위대한 인간의 모습을 다시 그리게 된 것이다. 이성에 대한 신뢰는 역사가 합리성을 향하여 움직여 가리라는 역사적 낙관론에 대한 신앙이며, 헤겔과 칸트, 공리주의자에 의해 신봉된 신앙이다.

부르조아적 생활의 낙관주의에 도전하기 위해 일시적인 역사변동설(historical catastrophism)을 주장했던 마르크스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점은 발견하지 못한다. 마르크스는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부르조아적 학설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역사발전의 변증

법적 요소를 헤겔로부터 배웠다. 그에게 있어 역사적 낙관주의는 필연적이며 또 어떤 역사적 변증도 - 비록 그것이 후퇴일지라도 - 인간 구원으로의 발전에 대한 서곡인 것이다.¹⁰⁾

그러나 20세기의 역사는 이러한 헛된 신앙의 꿈을 깨게 만들었다. 두 차례의 세계전쟁 뒤에 인간이 평화를 창조할 수 있다는 신념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 낙관의 신앙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니이버의 표현대로 “현대인의 역사 개념에 대한 현대 역사의 부인”이다.¹¹⁾

인간이 역사에서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는 신앙의 소유자들에게는 비극적인 일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 증거를 그들 시대의 역사가 보여준 것이다.

역사는 항상 인간이 의도한 결과를 넘어서 간다. 수많은 혁명이 의도했던 붉은 깃발만 나부끼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붉은 깃발 뒤에 의도하지 않은 검은 깃발을 나부끼게 한 것을 역사가 실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 낙관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참을 수 없는 절망을 안겨다 주었다. 인간의 행위가 인간에게 속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망이 모든 비극의 공통된 주제이며, 이것은 괴테의 시에서도 볼 수 있다.¹²⁾

“아! 우리의 고난과 함께 우리의 행위까지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향로를 방해한다”

인간이 역사의 물결에 내맡겨져 떠내려 가는 가랑잎과 같은 존재일 때도 인간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의미있는 삶, 자신의 참실존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란 무엇인가? 개인적인 숙명에 인간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파스칼은 그의 명상록 「팡세」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¹³⁾

“...우주가 인간을 말살하더라도 그는 그를 죽이는 자 보다도 더 고귀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 우주가 그를 능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주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허무주의를 탈피하고자 하는 실존주의적 몸부림이며 일종의 도피이지 참실존을 찾을 수 있는 극복은 아닌 것이다.

이제 역사적 사건의 최후 결정자가 인간이 아니라면 또다른 무엇으로 설명 가능하며, 인간이 경험하는 허무주의는 무엇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인가?

IV. 역사에 있어서 섭리와 인간의 책임

역사를 움직여가는 힘에 대한 마지막 설명은 기독교적 입장인 하나님의 섭리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창조 이후 역사에서 부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며, 우주를 시계와 같이 돌아가게 버려두시는 하나님도 아니다.¹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자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행 17:15-17).

그는 역사에 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은 역사의 목적과 관련된다. 모든 만들어진 사물의 목적이 만든 자에 의해서 결정되듯이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¹⁵⁾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고 역사에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구원이다. 따라서 역사의 전과정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을 찾는 과정이

다.¹⁶⁾ 따라서 기독교적인 역사이해는 역사적인 일련의 사건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다. 이 사건은 타락으로 인해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서 역사에 개입하시고자 한 것이며,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하나님 자신이 의도하신 역사의 목적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 사건은 역사에 개입하시는 섭리 중 가장 중심적인 것이며 결정적인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인간은 구원을 성취하게 되었으며, 역사는 그 목적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연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역사가 종말을 맞이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역사의 목적이 성취된 것이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다. 완전한 성취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¹⁷⁾

역사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 목적이 설정되고 이끌려진다면 역사 내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란 무엇이며, 인간의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인간 실존의 문제가 여기에서도 제기된다. 인간에게 조금의 자유도 없는 것이라면, 인간은 원격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에 불과한 존재이며, 그의 행위가 주관적 의미를 가질 수 없고, 어떠한 역사적 상황에도 그가 책임을 느껴야 할 이유가 없다. 무신론자들이 도달했던 허무주의를 우리도 맛보아야 하며, 1914년 이전의 제국주의적 경쟁이 전쟁을 유발했다 해서 그들 정책 추구가 비난받을 필요가 없으며, 히틀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같은 이유로 기독교적 입장이 비난받는다면 그것은 기독교적 입장의 올바른 이해는 아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적으로 배제된다면 그것은 성경적 입장이 아니다. 성

경의 많은 구절이 우리의 의지에 호소하고 있으며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강조하는 것에 대한 경고로서 알렌 파리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¹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서 피조물 속에 두었다. 때문에 인간은 피조세계의 질서 속에 관계될 뿐 아니라 창조주인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우리의 사고 속에는 창조에 의한…필연성의 여지가 있다. 반면에 우리는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이 말이 여러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바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 즉 인간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인간은 다른 어떤 생물도 가지지 못한 결정과 창조라는 독특한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인간의 독특한 특성과 창작력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계의 질서나 인간에게 주어진 독특한 능력을 우리가 깊이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섭리에 대한 우리의 강조는 신학적인 결정론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진정한 기독교적인 역사 이해는 인간의 주도권, 필연성(법칙), 하나님의 섭리,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인간의 의도 하에 이루어진 사건이나 자연적 환경이나 역사적 환경에 의해 이루어지는 필연적 사건의 경우는 섭리에 포함될 수도 있다. 즉 섭리는 앞의 두 요인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다. 섭리는 이 세계에서 우리로 하여금 모험을 각오하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따라 살게 하기도 하며, 인간의 힘으로 저항 불가능 법칙의 힘에 절망하게도 만드는 것이다.¹⁹⁾ 허버트 버터필드는 역사에 있어서 섭리와 인간의 주도권에 관하여 ‘최초로 연주하는 한 편의 관현악 곡’으로 비유하고 있

다.²⁰⁾

“우리 각자는 마치 자기가 그 악보의 작곡자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것이며 혹은 자신의 특수한 역할을 지도적인 것으로 연주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나 개인적으로는 제 2 클라리넷 부분만을 볼 수 있을 뿐이며, 또 물론 지금 내 앞에 놓인 악보의 페이지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조차도 알 수 없는 한계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 중 어떤 사람도 우리가 이미 함께 연주했던 부분 이외의 것을 알 수 없다. 만일 내가 다음 악장에서는 B flat으로 연주해야 할 것을 확실히 알고 있을지라도 다른 단원들이 그것을 같은 순간에 연주하는 것을 들을 때까지는 B flat으로 연주되는 지를 확실하게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단원 누구도 언제 어디서 이 악보가 끝날 지를 알 수 없다.

... 작곡가 자신은 오케스트라가 음악을 연주하는 순간 순간 그것을 작곡해야 한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과 내가 돌린 악보를 연주한다면 그는 마음을 바꾸어서 바로 뒤에 나오는 소절들을 바꾸게 된다.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여줄 때까지 그 악보의 작곡자는 정말로 큰 신축성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음악이 실제로 연주되어서 과거의 사건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이 마치 작곡자가 항상 의도했던 것처럼, 즉 사건의 전과정이 처음부터 필연적이었던 것처럼 상상하도록 유혹당하게 된다.

위의 예처럼, 인간이 그의 결정대로 행동을 취하나, 하나님은 섭리를 통하여 그가 설정한 역사의 목적을 바꾸지 않으면서 성취되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인간 개개인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의 의지를 바꿀 수는 없으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V. 결론

마지막으로 기독교 史家 허버트 버터필드의 논의를 정리함으로서 결론을 맺어보자.

인간이 역사과정에서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들의 책임을 항상 강조해야 한다. 따라서 1914년의 결정을 내린 자는 그들의 책임 때문에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역사에서 인간은 항상 겸손하게 그들이 상용할 수 있는 의지의 한계를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역사는 자연적, 역사적 환경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따라서 크리스찬은 배후에 있는 법칙을 과학적으로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역사적 행동의 수행자들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진정한 역사를 보는 시각에는 동정심이 필요한 것이다. 사실 1914년의 정치인들이 우리가 그러한 환경에서 취했을 태도보다 더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은 그 당시의 정치인이 아니었다는 것 밖에는 없다.²¹⁾

그러나 크리스찬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인식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인식에서는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역사의 목적이 어떻게 수행되는가를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교훈 - 그것은 심판이거나 축복일 수도 있다 - 을 겸손한 자세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주 및 참고문헌

1) Sidney Hook, *The Hero in History*(역사와인간), 민석홍역, 을유문화사, 1982, p. 258

2) 길현모 외 6인 공저, 「서양사학사론」, 법문사, 1977, p. 59

3) 김정준, 「기독교 역사관」, 차하순 편, 사관이란 무엇인가, 청람, 1985, p. 111

4) A.L.Farris, *The Christian Approach to History*, 이석우 편,

「기독교 사관과 역사의식」, 성광문화사, 1981, pp. 149-150

5)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신앙과 역사), 종로서적, 1983, pp. 17-21

6) Rudolf Bultmann, *History and Eschatology*(역사와 종말론), 서남동 역, 대한기독교서회, 1968, p. 13

7) 길현모, pp. 15-19

8) Hook, p. 260

9) Hook, p. 263

10) Niebuhr, p. 5

11) Niebuhr, p. 10

12) Bultmann, pp. 10-12

13) R. Bultmann, p. 12

14) Hebert Butterfield, *Writings on Christianing and History*(크리스찬과 역사 해석), 김상신 역,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p. 61

15) Karl Lowith, *Meaning in History*, Chicago, 1949, pp. 1-19

16) Kenneth S. Latourette, 「기독교와 역사 사이해」, 이석우 편, 기독교사관과 역사의식, 성광문화사, 1981, p. 103

17) 스위스의 신학자 오스카 클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재림 사이의 시기를 1944년 6월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1945년 5월 독일의 항복의 사이의 기간에 비유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은 D-day이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완전한 승리의 날은 V-day이다.

18) A.L.Farris, pp. 153-154

19) H. Butterfield, *Writings*, p. 64

20) H. Butterfield, *Christianity and History*(기독교와 역사), 주재용 역,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pp. 126-127

21) H. Butterfield, *Writings*, p. 69